

사람의 마음을 읽는 5 원칙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우선 먼저 상대의 마음속에 강렬한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1. 남을 비난하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라.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닥터 존슨은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의 사후(死後)까지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2.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시켜라.

카네기는 남의 일을 자기 무덤의 묘비에까지 새겨서 칭찬하려고 하였다. 그가 스스로 쓴 묘비명은 이렇다.

자기보다도 현명한 인물들을 주변에 모으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멕시코 차팔테팩 궁전의 오브레곤 장군 동상에 아래와 같은 그의 신조가 새겨져 있다.

적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감언이설에 능한 친구를 두려워하라

3.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성공에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4. 듣는 입장이 되어라.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재능은 다른 어떤 재능보다도 훨씬 얻기가 어렵다. 다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에 실렸던 기사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사를 부르는 환자가 있다

5. 상대방의 관심을 파악하라.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파악하고 화제로 삼는 것이다.

人の心を読む5原則

人間の行動は腹中の欲求で生ずる。だから人を動かす最善の方法はまず先に相手の腹中に強烈な欲求を起こすようにすることだ。

1. 人を責める前に相手を理解しなさい。

イギリスの偉大な文学者ドクタージョンソンは“神様も人を審判するためにはその人の死後まで待つ。”と言った。

ところが、まして我々人間がその時まで待つことができないわけがあるのか？

2. 重要な存在であることを認識させなさい。

カーネギーは他人の事を自分の墓の墓碑にまで刻んで誉めようと思った。彼が自ら書いた墓碑銘はこのようだ。

自分よりも賢明な人物たちを周辺に集める方法を悟った人がここに眠る。

メキシコチャパルテペック宮殿のオブレゴン将軍の銅像に下のような彼の信條が刻まれている。

敵を恐ることにならない。むしろ甘言異舌が上手い友達を恐れなさい。

3. 他人の立場で思うこと。

成功に秘訣というのがあったらそれは他人の立場を理解して自分の立場と同時に他人の立場で物を見る能力だ。

4. 聞く立場になること。

他人の言葉を聴く才能は他のどんな才能よりもずっと得にくい。次はリダスダイジェスト誌に載せられた記事だ。

この世の中には自分の話を聞き入れるのを願うから医者を呼ぶ患者がいる。

5. 相手の関心を把握すること。

相手に関心を持っている事を把握して話題をすること。